

# 새뜰마을사업으로 왕의공원 프로젝트 시동

### 전주시, 2027년까지 총 43억원 투입 '낙수정 새뜰마을 조성사업' 본격 추진

1100여 년 전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중심부였지만 현재는 낙후된 전주시 교통 낙수정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게 됐다.

전주시는 올 하반기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30억 원 등 총 43억 원을 투입해 낙수정마을의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마을 여건에 맞는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낙수정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 대상 지역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후백제의 다양한 흔적이 잠든 낙수정 새뜰마을 우선사업이 시작되면서 시는 전주 곳곳에 산재



낙수정 위치도

한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을 한데 엮어 미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왕의공원 프로젝트의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우선 올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노후화된 계단

7개소를 정비하고, 붕괴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옹벽 5개소와 공·폐가 2곳을 철거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부터 △주택 정비(집수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생활인프라 확충(주민복합공동이용시설, 마을공동텃밭)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낙수정 새뜰마을 우선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생태·치유정원 조성사업 △자연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해서 기린봉 산 등성이에 둘러싸여 열악한 도심취약 지역으로 남아있던 낙수정마을을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시는 인구 유출과 노후한 인프라 등으로 생활 여건이 열악하고 활력을 잃은 낙수정마을이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과 연계사업을 통해 활기와 사람이 모이는 마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낙수정마을의 후백제 역사 문화유산을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관광자원으로 키워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낙수정마을은 과거 조선 왕조의 발상이자 견훤이 도읍을 삼고 후백제를 연 곳이자 전주에서 가장 동쪽 기린봉과 중부위산(승암산) 사이로 뻗어 내린 맥이 맑은 언덕배기에 조성돼 풍수지리로도 명당으로 일컬어져 왔다. /김욱기 기자

# 전주 위케이션 도서관 여행

### 도서관 인프라 활용 일·휴가 접목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전주지역의 풍부한 도서관 인프라를 활용해 일하면서 휴가도 즐길 수 있는 네 번째 특별한 도서관 여행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과 휴가지 원격 근무를 접목한 '전주 위케이션 도서관 여행'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가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전주 위케이션 도서관 여행'은 당일 여행으로 운영해 오던 도서관 여행을 '일'과 '휴가'를 접목한 '위케이션'이라는 새로운 근무 형태를 반영해 기획한 체류형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이다.

번째 위케이션 도서관 여행자들은 첫날 도서관 여행 해설사와 함께 여행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다가여행자도서관'과 한옥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연화정도서관'을 여행할 예정이다.

이어 둘째 날에는 웹툰 '닥터 프 로스트'의 이종범 작가가 초청돼 '주인공의 감각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시는 여행자들에게 한옥마을 인근의 동문헌책도서관과 서화예술 마을도서관, 한옥마을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위케이션 공간으로 제공하고, 일하면서 필요한 스캔과 인쇄 등의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여행자들에게는 전주의 곳



곳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근 카페와 동네책방, 공방 체험 배우처 등도 제공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의 전북형 위케이션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전주 위케이션 도서관 여행은 전북특별자치도 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등이면 누구나 회당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 10만 원(2박 3일)이다.

위케이션 도서관 여행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상반기 위케이션 도서관 여행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회 만족도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95점 △위케이션 공간 만족도 100점 등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이번 위케이션 도서관 여행이 전주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홍보와 여행자들의 장기 체류 증가에 기여할 기대한다"면서 "전주 도서관 여행이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오감만족 음식 축제 '전주비빔밥축제' 개최

### 10월 3-6일 전주종합경기장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행사인 전주비빔밥축제가 오는 10월 전주의 맛과 비빔의 미학을 담은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2024 전주비빔밥축제 - 전주UP, 비빔UP'을 개최한다.

오는 10월 한 달간 펼쳐지는 '전주페스타 2024'의 포문을 여는 올해 전주비빔밥축제는 전주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맛과 멋이 어우러지는 오감만족 음식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축제는 비빔의 미학을 담아 음식과 예술문화 행사 및 체험 등이 함께 비벼지고 어우러지는 복합문

화예술 축제로 향상(UP)돼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축제에서는 미식의 도시이자 예향의 도시인 전주의 우수한 음식과 예술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20여 개의 복합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대표적으로 전주비빔밥축제의 대표 행사인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 행사는 올해 철거돼 전주의 근현대사로 추억될 전주종합경기장의 준공년도를 기념해 1963명이 대거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로 꾸며진다.

또한 올해 축제에서는 전주음식주제관과 전주음식 테마존, 각종 공연 및 행사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주음식 테마존은 전주향토 음식과 국내의 유명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음식 체험존으로, △비빔

패밀리 존(전주지역 자생단체 약 15곳) △명품음식 존(전주지역 10여 개 대표 외식업소) △풍류음식 존(전주지역 10여 개 막걸리·가맥 외식업소) △세계비빔 존(10여 개 월드 푸드트럭) △장년체프 존(지역 내 조리학과 홍보 및 음식판매) 등으로 채워진다.

전주음식 테마존에 참가를 원하는 단체 및 업체는 전주시청 누리집과 전주비빔밥 축제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이외에도 올해 축제에서는 버스킹, 비빔퍼레이드, 스타쉐프 마스터클래스, 플래시몹이 포함된 비빔 공연, 야간 공연, 각종 이벤트 등 다양한 공연 및 행사가 준비된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비빔밥뿐만 아니라 맛의 고장 전주의 특



2024 전주비빔밥축제 포스터

별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축제로 만들 계획"이라며 "전주의 대표 음식축제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욱기 기자

# '한바탕 전주 여름철 물놀이장' 안전·수질 관리 만전

###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한바탕 전주 여름철 물놀이장'이 개장한 가운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립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장 만들기에 나섰다.

지난 2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한바탕 전주 여름철 물놀이장은 월드컵경기장 만남의광장 일원에 1만30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조립식풀과 구조물 슬라이드, 유수풀, 워터바스켓, 아쿠아챌린지 등의 시설을 갖췄다.

공단은 예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월드컵경기장 물놀이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 및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 비상구를 충분히 확보하고, 출입구와 비상구 통로 등에 안전 매트를 설치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물놀이장 동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조성된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

수용 인원을 1000명으로 제한한다.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2시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수질 현황을 매 회차마다 현황판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월드컵경기장 물놀이장은 이달 18일까지 24일간 무료로 운영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차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정비를 위해 휴장한다. /김욱기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 관광객 수용 태세 점검

### 한옥마을역사관·쌍샘광장 등 현장 방문 의견 청취

우범기 전주시장이 관광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주한옥마을 문화시설 등을 찾아 관광객 수용태세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지역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지역 현안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2일 '한 걸음 더, 시민 속으로' 과고를 위한 민생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전주한옥마을과 인후1동을 찾았다.

우 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인 김동식 선자장의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 부채문화관을 필두로 한옥마을역사관 등의 문화시설과 현재 진행 중인 쌍샘광장 사업현장 등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 무더위에 지친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추억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얼음길과 쿨링포그, 그늘막 등 폭염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한옥마을을 찾아 쿨링포그를 점검하고 있다.

대비 재난시설을 돌아보며 전반적인 관광객 수용 태세를 점검하기도 했다. 또한 인후1동 주민센터와 민원발생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역현안을 청취하는 소통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